



삼백이의 칠일장

1. 애야, 아무개야, 거시기야!
2. 삼백이는 모르는 삼백이 이야기

천효정 글 | 최미란 그림 |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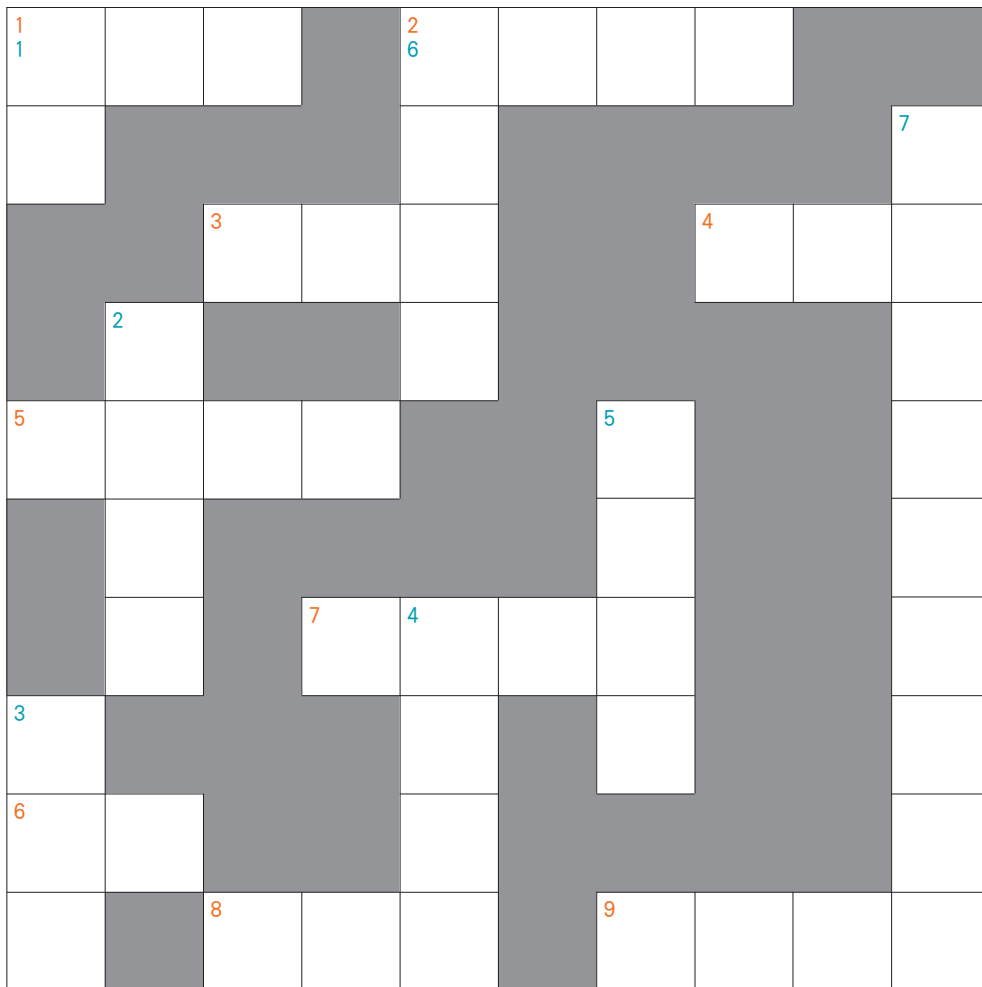
독후활동지 1



내가 <삼백이의 칠일장> 마스터!

10X10 가로세로퍼즐

책을 옆에 놓고 풀어도 좋습니다.



가로 힌트

- ① 이름 없는 아이가 묵은 집의 주인 할멈의 이름.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찾아와 “○○○, ○○○, ○○○.” 세 번 부르자 다음 날 그만...(1권 9쪽)
- ② 달걀이 없으면 밥을 안 먹던 어느 집 외동딸이 ○○○○한 입내가 나는 병에 걸렸었지. 어느 날 밥을 얻으러 왔던 거지가 딸의 병을 고칠 방법을 알려줬고...(1권 41쪽)
- ③ 딸네 집에 찾아온 거지였다가, 개장수였다가, 금강산에서 밥 지어 먹던 심마니였다가, 뱃사공이었다가, 사냥꾼이었다가, 장돌뱅이로 살아 온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없이 삼백 년을 살았는데 도롱이 걸친 늙은이와 말싸움을 하다가 이 이름을 짓고 말았지.
- ④ 폭이 좁고 호젓한 길. 안저할멈과 못저할멈이 잔칫집 가는 이 길에서 한판 싸웠지?(2권 13쪽)
- ⑤ 지는 걸 정말 싫어하던 고집불통 할멈의 이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안 져.” 하고 밤에 누워서 “내일도 안 져.” 했다.(2권 8쪽)
- ⑥ 백두산 호랑이왕의 특기였어. 한번 이것에 나섰다 하면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었대.(2권 38쪽)
- ⑦ 담 큰 총각이 도깨비를 만나서 이것 좀 빌리자고 했었지. 그래서 도깨비는 짹짹이 다리가 되었어.(2권 81쪽)
- ⑧ 사람이 죽고 이레 만에 치르는 장사. 가족도 없고 동무도 없던 삼백이의 ○○○을 여섯 동물 귀신들이 치러 주었지.
- ⑨ 오색매연에게 붙들려 있던 연장군이 이것의 냄새를 맡고 집이 그리워져 돌아올 수 있었어. 구수하고 달콤한 그 냄새에는 아무도 못 버틸걸.(1권 115쪽)

세로 힌트

- ① 누구나 있지만 삼백이에게는 없었던 것.
- ② 안저할멈의 라이벌. 지기 싫어하기로는 안저할멈 못지않았대.(2권 13쪽)
- ③ 배를 부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 게을러터지면 배를 꼬로록 가라앉힐 수도 있지.(2권 35쪽)
- ④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큰소리치는 모양을 말하는 사자성어야. 예를 들면 연장군의 짹짹하던 오색매연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연장군에게 펄펄 뛰며 화를 낸다거나, 고등어도 뽀주리감도 양보한 먼저할멈에게 억지로 부아를 내는 안저할멈을 두고 “○○○○도 유분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 ⑤ 안저할멈이 이 감을 먹고 꾸르륵꾸르륵, 큰 일을 당했지. 모양이 가름하고 끝이 뽀족한 이 감을 보면 누구라도 군침을 흘릴걸.(2권 19쪽)
- ⑥ 달걀 좋아하던 외동딸이 이것을 삼키고 병에 걸린 거야. 달걀인 줄 착각해 이 알을 삼키는 바람에 엄마 구렁이 십년감수했지.(1권 47쪽)
- ⑦ 꼬마 시동의 말에 따르면 개에게 제일 맛있는 밥은 바로 이 밥이래. “본래 개에게 제일 맛있는 밥은 다른 개에게 ○○○○ ○○○ ○○입니다.” 이랬잖아? 멍도령은 그렇게 꼬마 시동에게 대답게 사는 법을 배웠지.(1권 87쪽)





삼백이의 칠일장

1. 애야, 아무개야, 거시기야!
2. 삼백이는 모르는 삼백이 이야기

천효정 글 | 최미란 그림 | 문학동네

독후활동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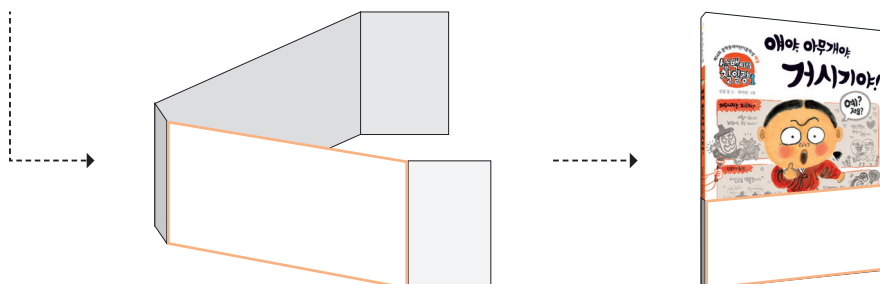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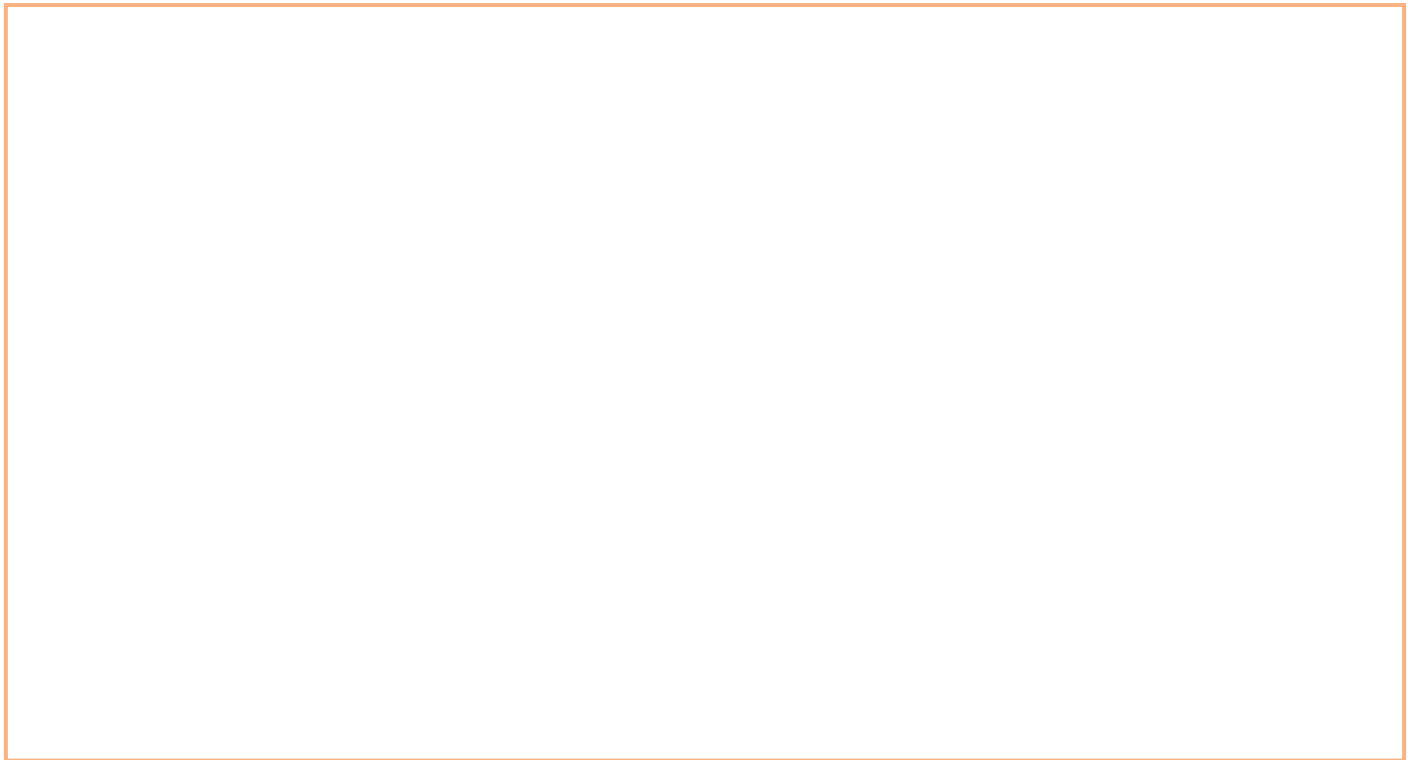
재미있는 이야기는 같이 읽자! 나만의 띠지 만들기

책에는 종종 그 이야기의 재미와 깊이를 홍보하는 ‘띠지’가 둘러져 있어요.
눈에 쏙 들어오는 글귀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책을 고르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지요.

〈삼백이의 칠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나만의 띠지를 만들어 보세요.

아래 네모를 글과 그림으로 꾸민 뒤에 종이를 덧대 붙이고,

책 크기에 맞게 접어 휘리릭 두르면 완성!





삼백이의 칠일장

1. 애야, 아무개야, 거시기야!
 2. 삼백이는 모르는 삼백이 이야기
- 천효정 글 | 최미란 그림 | 문학동네

독후활동지 3



전격 인터뷰!

삼백이의 칠일장, 두 권의 책에는 여러 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름 없는 아이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삼백 년의 세월이니
수많은 생명들과 기막힌 인연들이 셀 수 없지요.

이야기를 다 읽고 더 궁금한 인물, 어쩐지 마음이 가는 인물,
진짜 사연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 인물을 하나 골라 인터뷰를 해 봅시다.
질문을 먼저 만들고, 그 인물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답해 보세요





Q:

A:



Q:

A:

